문화특집 기업문화에 대한 대항문화로서 노동자문화 건설

문화를 통한 기업의 지배 극복

기업문화 하면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것은 사내호프, 사내노래방, 노사화합체육대회, 등반대회등을 회사가 선수를 쳐서 복지적 차원에서의 혜택을 주고 노조와 맞불지르기 작전을 펴는것으로 알고 있으나, 이런것은 기업문화의 말단적인 현상의 하나일 뿐이다.

본래 기업문화란 "기업체의 구성원들이 모두 공유하고 있는 가치관, 신념, 이념과 관습, 규범과 전통, 지식과 기술들을 포함한 종합적인 개념으로 조직구성원과 조직체 전체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기본요소라고 할 수 있다. 다시말해서 기업문화란 조직구성원들이 공통적으로 생각하는 방식, 느끼는 방향 또는 행동하는 패턴의 체계를 말한다."(서강대 박내희 교수, 경영학) 기업문화는 겉으로 알고 있는 예술행사를 기업이 주최한다든가 그런것이 아니라, 기업의 경영 이념에서 부터 취미활동까지 일관된체계와 지침을 갖고 진행되는 기업경영의 한 부분인 것이다. 좀더 실감나게 예를 좀 들어보자. 요즘은 너나 없이 기업문화창조를 얘기 한다. 창립 55주년을 맞아 제2창업 제2기 출발을 선언한 삼성그룹은 그동한 그룹을 상징하고 정신적 지주역할을 해온 경영이념, 심벌마크, 그룹가등을 일제히 바꿨다. 삼성이 그룹이념체계재정립을 시작한것은 92년 6월 전담조직인 정신문화연구팀을 구성하면서 부터였다. 기업문화 형성의 첫 작업은 기업의 가치관, 사상의 정립으로 부터 시작된다. 이 가치관이란 기업구성원 전체의 행동을 규정하고자하는 기본요소가 되기 때문이다. 이것을 알면 그 기업문화의 사상철학적 특성과 한계를 파악 할 수 있다. 어쨌거나 이들은 삼성그룹의 이념체계정립을 위한 첫 사업으로 3개월여에 걸쳐 기존의 삼성정신에 대한 재검토와 국내외 선진기업의 기업이념현황을 조사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그룹내 임직원 3천여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함과 동시에 임직원을 중심으로 전문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연구내용을 심의토록 했다. 또 기업이미지 통일 전문업체인 미국 LNM회사등 외부 컨설팅회사의 의견을 수렴하고 자문교수에 대한 면담과 의견 수렴과정을 거쳐 마지막으로 그룹 사장단 회의를 거쳐 최종확정하게 되었다. 그래서 체택한 경영이념은 '인재와 기술을 바탕으로 최고의 제품과 써비스를 창출하여 인류사회에 공헌한다'이다. 참으로 무지무지하게 원대한 이상이 아닐 수 없다. 우리 운동들도 삼성에 들어가면 우리 목표를 실현할 수 있을 것 같다. 그 얘기는 잠시 뒤로 미루고 계속 진도를 나가 보자. 기업의 이념이 결정되면 두번째 단계로 전략을 수립한다. 그래서 인류의 공익사업을 실현하여 여 인류사회에 공헌하는 것을 궁극적인 기업의 목표로 고객에게 최고의 만족을 줄 수 있는 제품과 써비스를 만들어 낸다는 것을 잡게 된다. 이러한 전략과 함께 문화는 기업의 가치관이 반영된 근본적 방침으로 고객의 요구와 사회의 요구를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기업 이미지와도 맞물려 있는데 기업 이미지는 하루 아침에 형성되는 것도 아니고 임기응변식으로 탄생되는 것도 아니다. 좋은 기업 이미지는 기업의 전략과 문화가 결합되어 사회와 고객의 요구에 들어 맞을 때 창출될 수 있다는 것이 이들의 원론적인 생각이다. 물론 이것만으로 다 되는 것은 아니다. 삼성그룹 정신문화팀 관계자의 말처럼 '이념과 전략이 아무리 잘 갖추어져 있어도 일상 경영활동을 통해 실천해 나갈 때 뿌리내릴수 있다'는 것이다. 풍토 조성등이 그것이다. 이런 경영혁신운동의 결과로 회의시간, 회의비용, 보고문서와 결재 소요시간을 줄이는 성과를 거두기도 한다. 하지만 이것은 기업의 성과이지 노동자들의 성과는 아니다. 노동자들은 정반대의 현상으로 콘베이어 벨트에서 일하는 육체노동과는 전혀 다른 질의 피로에 휩싸이게 되고 이것이 일본에서도 크게 문제시 됐던 30~40대의 과로사의 원인이 된다. 즉 이전 포드 시스템에서의 피로의 원인이 단순육체노동에서 오는 것이었다면 경영합리화 운동하에서는 자율성의 미명하에 정신적인 스트레스에 의한 과로사라는 신종 노동착취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생명이 더 빨리 곤혹스럽게 단축된다는 점에서는 포드주의적 노동보다 훨씬 노동강도가 강화 됐다는 것이다. 이정도만해도 노동자들이 잘 느끼지 못하지만 자연감원

◇중회사에서 주최한 노동자 단합대회

기업주도의 문화행사를 비판만 할 수 없다는데 노조의 고민이 있다.

경영 이념과 대별되는 노조 이념 건설

기업문화의 실체와 동력 옳게 인식해야

그래서 전임직원을 상대로 이해 및 실천에 중점을 둔 교육을 실시하고, 인사 제도를 비롯한 제도와 풍토도 일관된 방향에서 계속 수정을 해 나간다. 새로운 그룹의 상징마크를 만들고 기업광고를 제작하는 등 외부적인 문화 시업과 함께 경영혁신운동을 벌인다. 제품의 부가가치화, 업무효률의 최적화, 개인의 능력향상, 고객중시 변형시간근로제 같은 상품에 와서는 새로운 경영합리화의 모습이 서서히 노동자들의 눈에 들어오기 시작한다. 현실이 이러함에도 기업주의 입장에서 이것을 슬기롭게 넘어가게 해 주는 것이 기업문화이다. 이 단계부터는 기업이 무엇을 어떻게 하는지 뚜렷이 보이기 시작한다. 전직원이 참여하는 체전을 한다든지, 하계휴양소를 열어주고 무료 영화시사회를 한다는지, 노사화합노래자랑을 한다든지 하는 등 다양한 행사로 나타난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것에만 매몰되어서는 기업문화의 실체와 동력을 옳게 바라보지 못하며 그 이전에 선행되는 이념과 전략의 상호연관 속에서 바라봐야 한다. 또하나 주목할 것은 기업문화 확산이란 구호아래 진행되는 각종 공익 문화사업이다. 탁아소나 의료원설립, 복지재단에서 하는 장학회사업, 민속문화보존사업, 환경사업으로 추진하고있는 꽃씨나눠주기, 일사일산가꾸기운동 등이 그것이다. 참으로 아름다운 모습이 아닐수 없다. 하지만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밝혀졌듯이 이러한 문화재단이나 사설은 탈세나 돈물리기등의 저질적 용도로 쓰여진다는 데서 우리가 기업문화에 대해 가졌던 마지막 희망을 무너뜨리고 만다. 기업문화정책은 단순한 문화행사 몇개로 노사 갈등을 피해보자는 차원으로만 해석할순 없다. 앞서보았듯이 나름대로 가치관을 세우고 그에 맞는 전략과 경영운동을 추진하는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과정을 총체적으로 바라봐야 대응 방안을 효과적으로 얻을 수 있다. 이것을 문화나까 문화로라는 단순한 생각으로 맞대응 해불려고 했지만 그것은 금새 한계를 노출해버리곤 했다. 문화 복지적 측면에서는 노조와 기업의 물적토대 자체가 비교가 안됐기 때문이었다. 결국 기업경영이념과 대별되는 노동조합의 이념을 튼튼히 세우지 않으면 안되는 문제였고 그것에 바탕을 둔 우리사회 조직문화를 건설하는 문제로 귀결된다.

이 승 구

〈노민문련 창작단장〉

水菊 핀 하루 〈7〉

글:김도형〈국문·4〉 그림:김진우〈미교·3〉

행정과 장사병제인 김상병이 침을 튀기며 목격담을 떠들고 있었다.

"빨을 정신없이 갈기는데 불쌍해서 못 봐주겠더라."

못 들은 체 하고 슬그머니 밖으로 빠져나왔다. 혼자 있을 만한 곳은 화장실 뿐이었다. 텅 빈 화장실에는 천정에 매달린 삼십촉 짜리 백열등 하나가 쓸쓸하게 빛나고 있었다. 주머니를 뒤졌지만, 둥친 두 알만 바스락거렸다. 다시 한번 더듬거렸지만 헛수고였다. 낭패였다. 하는 수 없이 모래 재털이에 꽂혀 있는 긴 꽁초 하나를 집어들었다. 재를 털어내고 구겨진 필터를 바로 폈다. 손끝까지 성냥불이 닿 때를 기다렸다. 성냥불은 조금씩 몸을 뒤채며 엄지손가락께로 기어올랐고, 성냥개비는 까맣게 사그라들었다. 담배연기 때문이었는지 눈이 매웠다.

모포 속에서 유일병을 기다렸다. 야근때문에 늦는다는 이야기를 점호시간에 들었다. 밤을 새우더라도 유일병을 기다려야 됐다. 일번초와 이번초가 교대를 하는데도 유일병은 나타나지 않았다.

유일병한테 한 번 맞아본 적이 있었다. 내가 사고를 친 날이었다. 유일병처럼 조금한 사고가 아니라 큰 건수였다. 첫 외박인데 겁도 없이 점프를 했다. 목적지는 고향이었다. 경주까지 버스로 가서 동해남부선 기차를 갈아 탔다. 경주역으로 가는 모든 국도에는 흰 헬멧을 눌러쓴 해병대 헌병들이 검문을 했으므로, 버스로는 갈 수 없었다.

편지 횟수가 점점 줄어드는 것이 불안했지만, 그래도 설마 설마, 설 연휴 한 번 외출이 있을까, 오금을 박는 그 감정 없는 차가운 목소리 앞에서 나는 한 말도 않았다. 따귀 한 대 올려부칠 생각은 커녕 도대체 왜 이러는 원망의 말 한 마디 못하고 다시 기차에 올랐다. 감정을 억제하자, 속 깊은 멀다라고 속앙을 절근절근 씹으며 속다짐을 할 뿐이었다. 부대 앞까지는 어떻게 되돌아왔지만 남은 세 시간을 견디기 못했다. 정신없이 소주잔을 비웠고, 간신히 정신을 추스려 위병소를 통과했지만 아뿌 복귀시간을 넘긴 뒤였다.

내무반은 발칵 뒤집어졌고 말로만 듣던 줄빠따가 터졌다. 화장실 뒤는 쌍소리와 신음소리로 뒤쪽박쪽이 되었다. 한 동기씩 내무반으로 돌아가고 마지막으로 유일병 동기와 막내 동기만 남았다.

"사정은 알고 있다만 할 수 없다. 여기는 엄연히 군대다."

동기 신임을 제쳐두고 유일병이 직접 야구 방망이를 들었다. 단 두 대에 동기들은 모두 쓰러졌다. 영덩이에 첫 충격을 느꼈을 때, 남자가 무릎을 꿇는 것은 가장 수치스러운 것이라는 말이 언뜻 머리를 스쳤다. 유일병 앞에서는 더더욱 싫었다. 다시 방망이가 날아왔고, 이를 악물었다. 세 대, 네 대… 공기를 가르는 방망이 소리가 획획 귓속을 파고 들었고, 나는 받은 숨소리를 이빨로 씹을었다. 여섯 번을 휘두른 유일병은 기절에 방망이를 내던졌다. 둔탁한 소리가 정적을 깨뜨렸다. 남자가 무릎을 꿇는 것은 가장 수치스럽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 자리에 쓰러지고 싶었다. 하지만 장다구와 오기가 용서하지 않았다.

모두 내무반으로 들어가고 둘만 남았다.

"아프지? 사내 자식이 얼마나 못났으면 기절에 차이고 다니노."

영덩이와 가슴을 찬찬 주물러 주면서 유일병은 눈물을 찬다 참기 어려웠다. 그때 있고 것 눈물을, 유일병 몰래서 삼키고 말았다. 내 맛에는 뒤늦게나마 가장 절실히 필요한 책에서 배울 수 없는 무엇이 있고, 그것을 나보다 훨씬 많은 사람한테서 배울 수도 있다는, 어쩌면 다 낡은 평범한 상식을, 나는 그제서야 깨웠는지도 모른다.

이번초와 삼번초가 근무교대를 하는데 노크소리가 들렸다. 수화를 하고 들어오는 사람은 유일병이었다. 두 사람은 약속이라도 한 듯 아무런 수작 없이 문 밖으로 나갔다.

행정관 가는 들길 위로 달빛이 하얗게 잠겨 있었다. 담장 너머 불어오는 바람이 목덜미를 시원하게 스쳤다. 사루비아, 분꽃, 봉선화, 수국, 색색의 꽃잎이 바람결따라 흔들렸다.

"고생 많았제?"

꽃밭 한 구석에 자리를 잡은 유일병이 슬냄새를 진하게 풍기며 말을 꺼냈다.

"제가 필요 유일병님이……."

"내 걱정할 거 뭐 있노. 내사 맞는 데 이골난 몸 아이가. 그라고 보좌관한테 들었제. 적당한 선에서 보고하고 끝낸다 했으니까. 걱정하지 마라. 괜찮, 공부하는 것도 죄가 되는지…"

그리고는 사루비아 꽃잎 하나를 뽑아서 입에 물었다.

"기분이다. 니도 하나 먹어라."

얼떨결에 유일병을 따라서 사루비아 꽃지를 빨았다. 달짝한 맛이 혀 끝에서 녹았다. 얼굴을 마주한 둘은 키득키득 웃고 말았다.

"그런다고 기죽지 말고 공부는 계속해라."

금새 정색한 유일병이 꽃잎을 웃웃 주머니에 넣으면서 말했다. 하마터면 "예" 라는 날말이 튀어나올 뻔했다. 하지만 그렇게 말하기에는 너무 뻔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만 들어가자."

유일병이 먼저 일어섰다. 내무반으로 성큼성큼 걸어가는 유일병의 그림자가 조금씩 비틀거렸다. 수국 꽃잎이 바람에 흔들리면서 엄굴을 간질었다. 문득 그에게 물어야 했던 질문 하나가 떠올랐다.

"유일병님, 이 꽃 이름이 왜 수국이지요?"

〈끝〉

'수국핀 하루'를 읽고

소설은 왜 쓰는가? 그리고 왜 읽는가? 위의 두 질문에는 수많은 대답이 가능하겠지만 "水菊 핀 하루"라는 학생 작품은 그 대답들 가운데 하나를 우리에게 들려준다. 남에게 들려주고 싶어 안달이 날 정도의 이야기가 있을 때, 혼자서만 알고 묻어두기엔 그 이야기에게도 그리고 다른 이들에게도 좀 염치가 없다는 생각이 드는 이야기가 있을 때 소설 쓰기는 그 한 방편이 될 수 있다. 그리고 그런 이야기를 듣는 것은 재미있거나 유익한 경우가 많아서 우리는 기대를 품고 소설을 펴들기도 한다.

"水菊 핀 하루"는 "나"라는 인물의 군대 체험을 비교적 서둘지 않고 담담하게 써나간 작품이다. 그러고 군생활을 함께 한, 따뜻하고 꿋꿋한 성품을 지닌 한 동료 병사의 이야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젊은이들에게 군대 체험이란 얼마나 새로운 것이며 남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내용들로 가득찼는가. 마음에 크게 빚진 느낌을 발을만큼 희생적인 호의를 베풀어준 동료의 우정을 어찌 혼자서만 알고 묻어둘 수 있겠는가. 희생 이야기는 언제나 우리에게 감동을 준다.

그러나 이 작품의 작자는 소설 쓰기에서 좀 유념해 둘 것들이 몇 가지 있다. 이야기를 할 때 서둘지 않는 것은 대체로 좋은 요령이지만 산만하거나 장황한 것은 이야기의 효과를 떨어뜨린다. 짧은 단편에서는 더욱 그렇다. 글쓰기의 규칙도 철저히 지켜야 한다. 규칙을 준수하지 않으면 의사소통이 불가능해지거나 독자로부터 빈정을 먹는다. 이를테면 맞춤법 하나도 소홀히 해서는 안된다. 꽃할 수 없는 것을 "꽃혔다"고 써서도 안된다. 꽂혀는 것은 대개 끝이 뾰족한 물체에 한정된다. 꽃은 색깔이 칠해져 있는 것이 아니다. "칠해져"있다고 써서는 안된다. 외래어 표기도 표기법에 맞도록 해야 한다. 사정을 늡(적어도 글쓸 때는) 결에 두면 된다. 작자가 학생이기에 하는 충고들이다.

조 해 일

〈문리대교수·국문학〉

"앉아서 쉬기에는
늙은 나무 그루터기가 제일이야"

나무는 할 수 있는 한 최대로
몸뚱이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열매와 가지, 몸뚱이까지 모두 줘 버린
늙은 그루터기가 할 수 있는 것은
이것뿐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쉴곳이 필요한
노인으로 변해버린 소년에게는
가장 좋은 선물이었습니다.

우리 대학주보사는
경희인 모두에게
'그루터기'가 되고자 합니다.

대 학 주 보 사